

前近代的 意識發生源으로서의 族譜攷

孫 兌 鉉

A Study on Genealogical Record as a Source of Premodern Consciousness

Tae-Hyon Sohn

〈 目 次 〉

序 言

問題의 提起

第 1 節 族譜·正統後裔-그 虛像과 實像

1. 正峯集-族譜의 虛·實
2. 戊戌譜·丙子譜-族譜編纂者에 關한 虛·實
3. 丹邱集-正統後裔의 虛·實
4. 壬戌譜-虛·實의 再確認

第 2 節 虛構의 設置와 그 既定事實化企圖

1. 戊戌譜(1838年?)-虛構의 設置
2. 丙子譜(1876年)-虛構의 既定事實化
3. 辛酉譜(1981年)-故意的 捏造에 의한 血族存在의 抹殺企圖

第 3 節 虛偽捏造誘發事由

1. 分派間의 力學關係
2. 貫鄉外移居
3. 儒教(封建)社會의 價值觀

結 言

參考文獻

附 錄

Abstract

The Korean confucianism emphasize filial piety. A genealogy is an embodiment form of the confucianism attaching importance to filial piety.

This paper aims to study genealogy's influence on korean people who desire economic development as a supreme subjec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a deliberate falsehood and fabrication stuck to pre-modern view of value in a genealogy of Milyang Sohn family published in 1981. A genealogy as a source of premodern consciousness is an obstacle factor in the korean moder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序 言

獨逸이 낳은 巨擘인 Max Weber (1864 ~ 1920年) 에 의한 文化와 經濟發展과의 關聯에 對한 研究는 우리를 啓發하는 바 多大하다고 하겠다!¹⁾

最近 몇 年 동안에 韓國文化 乃至 儒敎文化와 經濟發展과의 關聯에 對한 比較的 많은 研究 成果가 있었다.²⁾

1) 國內에서 다음과 같은 文獻이 市販되고 있다.

- 崔文煥 : 막스웨버 研究, 三英社, 서울, 1978.
- Max Weber :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權世元·姜命圭 共譯;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一潮閣, 서울, 1974.
- Max Weber : Konfuzianismus und Taoismus, Translated by Hans H. Gerth; The Religion of China, The Macmillan Co., New York, 1968.

2) 다음과 같은 文獻을 들 수 있다.

- 金日坤 : 儒敎文化圈의 秩序と 經濟, 文化と 經濟發展, 名古屋大學出版會, 1983.
- 沈晚燮 : 韓國近代化의 課題と 阻害要因, _____, _____, _____.
- 吳鐘錫 : 韓國企業의 經營의 特質, 千倉書房, 東京, 1983.
- Roy Hofheinz, Jr., and Kent E. Calder : The Eastasia Edge, Basic Books, Inc., New York, 1982.
- M. Morishima : Why has Japan 'Succeede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1982.
- 森谷正規 : 日本·中國·韓國 産業技術比較, 東洋經濟新報, 東京, 1980.
- 日本生産性本部 : 韓國企業經營의 理念と 特色, 東京, 1981.
- 小室直樹 : 韓國의 悲劇, 光文社, 東京, 1985.

이는 韓國經濟가 最後進段階에서 벗어나 어느 程度의 成果를 올렸다는 것은 事實이나, 여러 가지 隘路와 限界에 當面하게 되었고, 거기에는 純粹經濟理論만으로는 說明不可能의 文化的 要素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經濟的 先進地域의 代名詞로 불리어지고 있는 西歐가 基督教文化圈에 屬해 있는데 對해 韓國은 儒敎文化圈內에 있다고 하겠다. 韓國의 儒敎는 孝를 道德의 根本으로 하여 이를 重視하는데, 이는 韓國의 道德이 中國과 마찬가지로 家族制度를 背景으로 하여 形成되었기 때문이며, 實踐的인 面에서도 이것이 明瞭하게 把握된다³⁾

近者 韓國經濟가 沈滯狀態에 있는 가운데, 國民經濟的 見地에서는 極히 微少한 것에 不過하나, 祖上墓地의 築造 乃至 墓의 裝飾을 爲한 石材加工業, 그리고 族譜와 祖上의 文集刊行에 關聯된 印刷業의 盛況은 우리의 注目을 끄는 바이다. 이는 孝重視의 儒敎文化的 實踐的 面이며 具顯形態라 하겠다.

이와 같은 具顯形態는 果然 單純히 祖上崇尚의 示顯이라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韓國人의 過去指向의 性格과 兩班憧憬의 心理가 作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韓國의 儒敎擔當者는 讀書人階級(兩班)이었으며, 여기에서 勞動賤視의 氣風이 造成되었고, 나아가서는 우리 社會에 不勞所得讚美의 精神이 澎湃하게 되어, 이것이 經濟發展의 障害要素가 된다는 것은 Weber의 視角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自明之事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또 儒敎의 始祖라고 할 수 있는 孔子의 尙古의 傾向은, 旺盛한 未來建設意識으로 萬難을 克服해야 할 우리에게 復古·退嬰의 精神的 影響을 미친 바 없겠는가⁴⁾

韓國儒敎의 孝重視는 血緣重視가 된다. 이것은 Weber가 말하는 Sachlichkeit (事物性·客觀性 實用性·公正性)의 缺乏이라는 性向을 扶植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리하여 族閥(血緣) 中心의 組織과 이에 의한 企業經營, 나아가서는 組織構成員의 職場運命共同體意識의 不足이라는 結果를 남게 되는 것이 아닐까.

近者의 韓國人生活이나 行動에서 볼 수 있는 些少한 現象에서 우리는 近代化와 經濟發展의 障害가 되는 重大沮害要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 아닐까.

本稿는 叙上한 바와 같은 問題意識으로서 孝重視儒敎의 具顯形態의 하나인 族譜를 分析·檢討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一般論的 族譜研究에는 專門的 知識이 必要함은 勿論 尠大한 文獻涉獵이 前

3) 孫兌鉉: 韓國船員의 職業意識에 關한 考察, 韓國海洋大學 海運研究所論文集 第3輯, 1984 參照.

4) 孔子의 尙古主義는 周知之事이나 論語 述而篇의 『子曰, 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 周公也』,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등이 이를 端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提가 되어야 하므로 筆者의 能力으로 堪當할 수 있는 範圍外의 問題라 하겠다. 그리하여 本稿의 對象의 範圍를 密陽孫氏 (評理公 孫季卿 後孫) 의 族譜 및 이에 關聯되는 諸文獻으로 限定하였다.

여기에서는 最近에 發刊된 密陽孫氏의 한 族譜에 의하여 問題提起를 하고, 密陽孫氏의 族譜編纂의 歷史를 文獻中心으로 可及的, 時系列的으로 考察함으로써, 族譜記事內容의 正確性과 虛偽의 有無와 그 程度를 檢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近親血緣關係에 있었던 初譜編纂時期에 있어서의 協力關係, 時間의 흐름에 따라 멀어지고 分派가 생기며, 家勢의 盛衰에 따라 主導的 分派의 交替, 이에 隨伴된 主導的 分派를 中軸으로 한 各分派間의 提携와 相反·葛藤, 이에 따른 族譜의 改竄·捏造와 그 動機·事由 등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考察으로써, 族譜는 果然 過去의 遺物的 存在인가, 또는 現代의 韓國人의 마음속에 그 命脈을 維持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萬一後者라면 그것은 近代化와 經濟發展을 至上課題로 하는 것이 要請되고 現代 韓國人에게, 그것은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本稿는 筆者와의 無緣인 人文科學分野의 研究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海運分野研究에 從事하는 一學徒로서 既히 發表한 『韓國船員의 職業意識에 關한 考察』((脚註3) 參照)에 緣由한 基礎研究이며, 構想中에 있는 『海運經營에 있어서의 傳統主義』에 對한 視座設定을 爲한 豫備考 察이라 할 수 있다.

本稿에서의 密陽孫氏는 評理公 孫季卿의 後裔를 뜻하며, 孫氏에 屬하는 人物의 人名表記에 있어서 特別한 경우 以外에는 姓을 省略하고 이름(諱)만을 記載한다. 그리고 一切의 敬語·尊稱을 省略한다.

이 보잘것 없는 論文을 爲해 많은 분들이 貴重한 助言과 文獻을 提供·貸與해 주셨다. 다음 여러분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盧在燦 釜山大學教授(文博), 一直孫氏完親會, 徐永權翁, 成均館顧問 全柄煥翁, 沃川全氏完親會長 全柄用氏, 玉山全氏宗孫 全炳轍氏·全炳會氏, 蓮坪派宗親會長 孫寅植氏, 大谷派宗孫 孫炳潤氏, 孫振必翁.

問題의 提起

密陽孫氏의 族譜에는 그것이 大同譜이거나 派譜이거나 共通의으로 다음과 같은 系圖와 記錄을 收錄함으로써 評理公 孫季卿⁵⁾을 中祖로 하는 事由를 밝히고 있다.

諱光立一子 載一子顯一子事純一子若辰一子仁美一子球一子瑩一子孝麗一子白賁一子贊
禮判部 令同正 刑判部 禮判部 中郎將 令同正 吏正 刑判部 都校署 禮判部 金紫光祿大夫·集
賢殿同修國史玉堂文學封密城君

『右自禮判部公，至密城君，十一世 譜牒，僕正公緹，得來於典籍孫海英家，而其後世有不能詳，故自評理公，始起代數』⁶⁾

[譯] : 『僕正公 緹이 禮判部公 光立에서 密城君 贊까지의 11代의 譜牒을 典籍 벼슬을 한 孫海英의 집에서 얻어 왔으나, 그것으로서는 後世代를 明確히 밝힐 수 없으므로 評理公으로부터 代數를 起算하기로 하겠다』

이 譯으로 볼 때 密陽孫氏의 牒譜當時의 祖上들은 曖昧한 點이나 不正確을 徹底히 排除하고 正確한 族譜를 編纂하고자 努力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系譜는 11代에 걸쳐 單 한 사람의 嫡子에 의해 이어져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의 例外도 없이 모두 高官·大爵이었다는 것, 이 點도 正確한 族譜編纂을 하겠다는 강한 意志에 불타고 있었던 牒譜當時의 評理公 後孫들을 滿足시키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評理公 後孫으로서의 密陽孫氏의 한 分派를 이루고 있는 校洞派가 最近(1981年)에 發刊한 辛酉譜의 序文에 다음과 같은 文章이 있다.

『惟我 校洞派라 함은 바로 一世 評理公의 六世孫인 監正公 諱 凝의 子 五兄弟中 세째 분인 鄒川公 諱 英濟의 後孫을 말한다.

卽 五兄弟라 함은 말이 諱 弘濟公 後는 淸道 大谷派이며 둘째 諱 經濟公 後는 居昌 加北派 이며 세째가 鄒川公 諱 英濟公 後는 卽 吾派이며 네째 諱 宏濟公 後는 淸道 雲浦派이며 끝은 諱 兼濟公 後는 竹院派이다.

族譜의 淵源은 各 氏族마다 그 歷史가 大同 小異하여 그렇게 오래 되지 않으며 大體로 三百年前後로 볼 것이다.

우리 密陽孫氏는 距今 143年前 憲宗 戊戌(1838年)에 修譜한 것이 始初이며 第二次는 距今

5) 評理는 門下評理의 略. 高麗時代門下부의 從二品の 官職名. 高麗(末葉) 30代 忠烈王 34年(1308年)에 評理로 불리게 됨. 31代 恭愍王 5年(1356年)에 僉知正事로 改稱됨. 季卿의 生·歿年은 未詳이나 高麗末期의 人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諱(휘) : 이름, 典籍 : 朝鮮時代의 大學인 成均館의 正六品の 官職名.

105年前 高宗 丙子 (1876年) 에 修譜하였으며 第三次는 距今 46年前 乙亥 (1935年) 에 修譜 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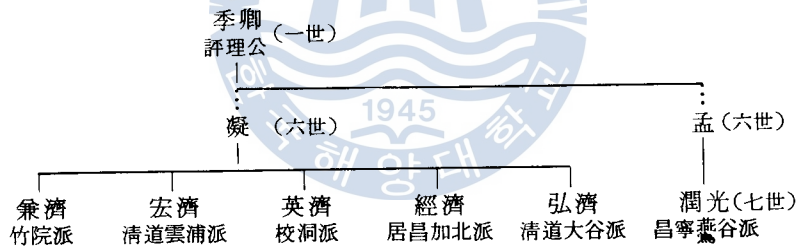
여기에 提起되는 問題는 그토록 正確한 族譜 編纂을 意圖한 祖上들의 精神을 그 後孫인 校洞派 가 어느 程度 이어받고 있는가 하는 點이며, 이에 關하여 考察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의 文章에서 밑줄을 친 部分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疑問이 提起된다.

卽 文獻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 編纂된 族譜의 最古의 것은 成化譜 (安東權氏, 1476年) 이다. 그리고 韓國에서 族譜 編纂이 盛行되기 시작한 것은 約 300年前부터 라고 하는 것이 通說이다. 그리고 族譜는 兩班이 平民·賤民들과 自己들을 區別하기 爲한 目的으로 編纂된 것이다.⁷⁾ 그런데 兩班을 自處하는 密陽孫氏가 겨우 143年前에 牒譜하였다 고 하는 것에 對한 疑問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提起된 問題에 關하여 考察하고, 이에 수반되어 發生한 疑問을 解明하고자 文獻檢索에 盡力하고, 그 檢索順序에 따라 考察을 展開하기로 하겠다.

校洞派의 辛酉譜 (1981年) 에서 말하고 있는 評理公後裔로서의 密陽孫氏의 分派를, 윗代에서 分系된 昌寧蕪谷派와 더불어 圖示하면 다음 <系圖 1>과 같다.



<系圖 1>

第 1 節 牒譜·正統後裔—그 虛像과 實像

1. 正峰集—牒譜의 虛·實

正峯集은 全有章 (沃川人, 1612 ~ 1675年, 號正峯) 의 文集인데, 歿後, 長男인 全克泰가 그의 父親의 諸遺稿를 整理한 것이므로 大端히 信憑性이 높은 文獻이다.

正峯集에 의하면 全有章은 沙溪 金長生 門人으로 尤庵 宋時烈, 同春 宋浚吉과 親交가 있었고 成均館進士, 官은 繕工監參奉이었다. 大邱邑誌에 全有章을

『學問純正, 爲士林推, 重作憂國韻, 以見志, 孝行』

이라 하였다.

7) 柳弘烈 監修: 韓國史大事典, 서울, 韓英出版社, 1979, 1384面 및 867面.

[譯]: 『學問이 純粹하고 바르고 선비들의 推戴를 받았다. 國難에 즈음하여 사람들의 士氣를 昂揚하기 爲하여 憂國律을 지었는 것으로 보아 그의 精神을 알 수 있다. 孝行이 있었다.』⁸⁾

이것으로 보아 훌륭한 人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正峯集의 『年譜』條에 『顯宗 7年丙午, 冬撰密陽孫氏譜序』라는 記事가 있다. 顯宗 7年丙午는 西紀 1666年이다. 이것으로 봐서 約 300餘年前에 密陽孫氏의 族譜가 編纂되었을 可能性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또 上記한 正峯集의 『序』條에 密陽孫氏族譜의 序의 全文이 記載되어 있다.⁹⁾ 이것으로 위에서 말한 可能性은 確實性으로 書換되어야 할 것이다. 密陽孫氏 家門의 名譽를 爲해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現段階로서는 約 300餘年前보다 以前에 密陽孫氏의 族譜編纂이 있었다는 內容을 담은 文獻은 檢索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正峯集에 記錄된 그 때의 族譜가 密陽孫氏의 始初의 大同譜라고 斷定하여도 異論의 餘地는 없다고 하겠다.

正確한 考證을 하기 爲하여 아래에 正峯集의 『密陽孫氏譜序』의 一部를 轉記하겠다.

『噫入此譜者, 其初一體也, 始於衰, 終於緦, 又至于無服¹⁰⁾, 無服則其視之若路人, 然夫以一人之身分, 而至於路人, 喜不慶, 憂不弔者, 豈人子人孫之所忍爲乎, 余以是常慨然, 外從覽聽余言, 瞿然動心, 卽就議於本貫所在諸秀士, 各以父兄所傳互相考證, 首書八代祖以中興之始¹¹⁾ 而至於五代以下, 則備述其娶某氏葬某山¹²⁾, 又書外王父五昆弟內外支派以示余¹³⁾, 余亦搜輯小牒中所記而增錄之作橫圖, 以序其次, 使之無致於忘焉.』

[譯]: 『아아 이 族譜에 記錄된 사람의 그 祖上은 한 몸이다. 斬衰에서 시작되어서 緦麻에서 끝나고, 또는 無服에 이르게 되나니 無服이면 서로 남같이 보아서 慶事에도 기뻐할 줄 모르고, 喪

8) 正峯集의 行狀에 의하면 丙子胡亂에 士林들이 義兵將으로 推戴한 바 있었으나 母夫人(孫英濟의 딸) 病患으로 出戰 못하고 憂國律五十韻을 지었다. 官職에 있게 된 것은 慶尙監察使 李泰淵의 懇切한 薦擧를 拒絕 못하였기 때문이고, 在職 3個月로서 辭任歸鄉하였다. 그리고 監察使가 親히 禮訪 乞教하고, 饗宴을 베풀었다는 것 등으로 미루어 尊敬받았던 人物이었음이 確實하다.

9) 附錄 參照

10) 五服의 制度를 말하는 것임. 父(斬衰)·母(齊衰)에 對한 3年の 喪, 祖父母·伯叔父母에 對한 1年の 喪(齊衰), 同堂兄弟에 對한 9月の 喪(大功), 再從伯叔母에 對한 5月の 喪(小功), 三從伯叔母에 對한 3月の 喪(緦麻)을 뜻함. 儒敎의 禮法인 五服의 制度에 의하여 血緣關係를 알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1) 覽의 8代祖인 評理公 季卿을 指稱하는 것임.

12) 密陽孫氏의 族譜에 의하면 覽의 五代祖인 信復부터 이에 關한 記述이 明確해진 것을 볼 수 있다. …點部分 『5代』를 『父兄』으로 하는 것은 誤植임.

13) 『外王父』라 함은 余(筆者=全有章)의 外祖父인 鄒川公 英濟를 指稱하는 것임. 따라서 覽과 全有章은 內外從의 血緣關係에 있는 것임.

事에도 조상할 줄 모른다면 어찌 사람의 子孫된 도리일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항상 말하였더니 外從인 覽이 나의 말을 듣고 瞿然히 動心하여 故鄕에 있는 모든 일가들과 의논하여 각각 父兄들에게 傳해 들은 바를 考證하여, 八代祖를 中興의 祖上으로 하고, 또 外祖父 五兄弟분의 內外支派를 다 列錄하여 나에게 보이였다. 나도 家牒에 記錄된 것을 찾아 모아서 記錄하고, 橫圖로 그 次序를 定하여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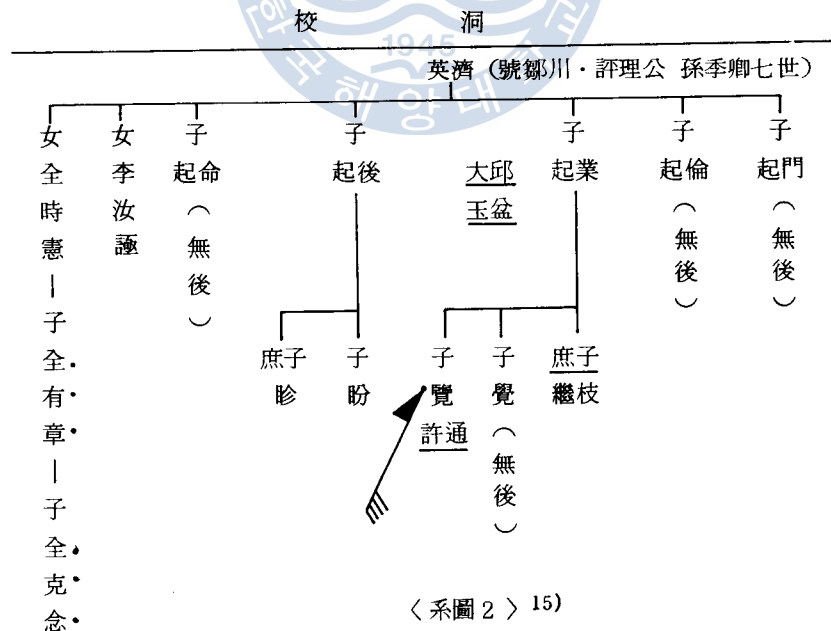
正峯集의 密陽孫氏譜序를 一讀하면 約 300餘年前에 密陽孫氏의 始初의 大同譜가 編纂되었다는 것을 確信할 수 있다. 위의 引用文의 밑줄을 그은 末尾의 文章은 特히 實感나게 그 事實을 말해 주고 있는 內容의 一部라 하겠다.

正峯集의 譜序에 의하여 密陽孫氏의 牒譜는 約 300餘年前에 覽과 全有章의 協力으로 編纂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¹⁴⁾ 여기에 覽은 어떤 人物인가 하는 疑問이 發生하게 된다.

校洞派의 辛酉譜 (辛酉=1981年)에는 覽이라는 人物은 存在하지 아니한다.

2. 戊戌譜·丙子譜 - 牒譜編纂者에 關한 虛·實

校洞派의 辛酉譜 (辛酉=1981年)에서 密陽孫氏의 牒譜라 하고 있는 戊戌譜 (戊戌=1838年)는 그 實에 있어서 牒譜가 아니라는 것은 正峯集에 의하여 判明되었으나, 이 戊戌譜나 辛酉譜가 密陽孫氏의 두번째의 大同譜라 하는 丙子譜 (丙子=1876年)에 의하면 覽은 다음<系圖2>와 같이 되어 있다.



14) 覽의 再從弟인 緜(竹院派의 代表的인 人物인 起陽·號聳漢의 嫡子)이 協力하였다는 것은 後述하겠음.

15) 起業의 女息에 關한 內容 省略.

이 系圖는 覽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解釋된다.

即 『英濟에는 5名의 嫡子(男)가 있었으나 첫째와 둘째 그리고 다섯째는 無後이고 後嗣가 있는 것은 三男 起業과 四男 起後 뿐이다. 그런데 起業에는 嫡子가 없고 3名의 庶子가 있었다. 그 長이 繼枝요. 次가 覺(無後)이고 季가 覽인데, 覽은 校洞派 아래에 속하는 庶派로서의 大邱玉盆派의 一員임으로 賤한 身分이나 密陽孫氏로서 通用되는 것이 許容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疑問이 發生하게 된다.

첫째, 嫡庶의 區別이 嚴格하였던 朝鮮朝 中葉에 庶子일 뿐 아니라 『許通』으로 賤待되었던 人物이 果然 한 家門의 牒譜 編纂을 擔當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疑問.

둘째, 成均館 進士인 全有章이 庶子이며 『許通』인 覽을 『外從』이라고 記錄하였겠는가 하는 疑問. 셋째, 戊戌譜와 丙子譜의 內容이 眞實이라면, 全有章은 嫡系 外從인 盼(校洞派 祖上)을 제치고 賤待받아야 하는 覽과 같은 人物과 牒譜 編纂이라는 重大事를 의논하였을까 하는 疑問.

이와 같은 疑問을 풀기 爲해 더욱 文獻 檢索이 이루어져야 한다.

3. 丹邱集 - 正統後裔의 虛·實

丹邱集은 全克念(沃川人, 1645~1704年, 號 丹邱)의 文集이다. 全克念은 孫英濟(鄒川)의 外孫인 全有章의 嫡子로 尤庵 宋時烈의 門人이며 官은 義盈庫 直長(從七品)이었다.

丹邱遺稿 卷之四 『通德郎 孫公 起業 行狀』을 보면 覽의 父인 起業은 號가 隱庵, 旅軒·寒岡의 門人으로 出衆한 儒學者요 훌륭한 人格者로 되어 있다.¹⁶⁾ 그리고 丹邱集에는 起業의 子女에 關한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孫公起業)配玉山全氏, 弘文館應教, 號溪東慶昌¹⁷⁾之女, ……有二男一女, 男長覺, 次覽, 女適陳光遠, 餘男繼枝, 覺嗣男敬祖, 覽四男, 敬祖入承宗, 念祖, 尙祖, 應祖, 陳男命錫, 繼枝男欽祖武宣傳, 餘不錄』

[譯]: 『孫起業은 玉山人 全慶昌의 딸과 結婚하였다. 丈人인 全慶昌은 號가 溪東이며 官은 弘文館 應教이었다. 孫起業과 夫人 玉山全氏와의 사이에 嫡子로서 二男一女가 있었는데 長男은 覺, 次男은 覽, 女息은 陳光遠에게 出嫁시켰다. 그리고 庶子로서 繼枝가 있었다. 覺의 養子는 敬祖이다. 覽에게는 4名의 嫡子가 있었는데 宗家에 入養한 敬祖를 비롯 念祖, 尙祖, 應祖가 그것이다. 陳光遠의 아들들은 陳命錫이고 繼枝의 아들들은 欽祖로 武科 宣傳官이다. 餘地에 關하여는 記述을 省略하겠다』

16) 起業은 大邱壽城(上洞)에 移居하여 一直孫氏門中 歷代의 代表의 人物인 孫處訥(號慕堂)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學問의 으로 敦篤하였다. 이와 같은 緣由로 『一直孫氏壽城閱歷』, 大邱邑誌 등에 그에 關한 記錄이 있다.

17) 大邱邑誌에 의하면 溪東先生으로 되어 있다. 先生은 儒敎社會에 있어서의 最高尊稱이다. 『一直孫氏壽城閱歷』에 의하면 孫處訥(慕堂)은 溪東先生의 門人으로 되어 있다.

이 文章은 起業의 嫡子로서의 覽의 位置와 嫡庶 長幼의 序列을 詳細히 밝히고 있다.¹⁸⁾

위의 考察로서 密陽孫氏 荊譜의 編纂者인 覽에 關한 前記 疑問은 解消되었다고 하겠다. 覽은 庶系도 아니고 더구나 『許通』으로 賤視될 人物도 아닌 훌륭한 家門의 嫡孫이며, 그 外家 또한 當時의 名門이었다. 따라서 覽은 한 家門의 荊譜를 能히 擔當할 수 있는 人物이라 하겠다. 도리어 戊戌譜와 丙子譜에 對한 疑惑이 濃厚해지는 바이다. 玉山全氏의 族譜에도 覺과 覽은 弘文館 應教 全慶昌의 外孫으로 明記되어, 丹邱集의 記事와 同一하다.

全克念은 約 300年前의 人物이므로 當時의 實情을 더욱 正確히 記述할 수 있는 與件下에 있었을 뿐 아니라 丹邱集의 다음과 같은 內容을 볼 때 그는 確固한 根據에 의하여 記錄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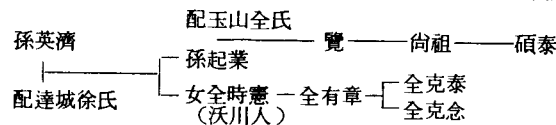
丹邱集에 의하면 全克念은 起業의 人格과 德이 出衆하고 學問造詣가 非凡하였다고 稱頌한데 이어 『余嘗耳承，而欽艷者久矣，日其曾孫碩泰，以其大人止翁命，奉遺事一通，屬克念以狀行文，克念何敢焉哉，第以宅相之地，自平生所素熟聞，則不敢以不文辭，謹就遺事櫟括，而間附庭命所受，以備立言君子攷據，而財擇焉』이라 하여 『行狀』의 글을 맺고 있다.

[譯] : 『나는 일찌기 (孫起業의 學德을) 귀로 듣고 흠모 한지가 오래 되었다. 近者에 曾孫인 碩泰가 그의 父親인 止翁의 命令으로¹⁹⁾ 遺事 한 통을 가지고 나에게 行狀을 부탁하니 내 어찌 敢히 할까마는 서로 隣接해 살았기에²⁰⁾ 平素에 익히 들은 바가 있으니 不文이라고 해서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遺事に 의거해서 간간히 先親 (全有章) 에게 들은 바를 붙여서 立言하는 君子가 參考해서 取擇하는데 資하고자 하는 바이다』

18) 正峯 (全有章) 行狀에서 이 『行狀』筆者 全克念의 父인 全有章의 性品을 『而要之，剛大之氣，堅確之節，實將之也，是故嚴嫡庶，則不役於慈愛，而家庭肅，如與人父，則一於直諫，云云』라 하고 있는 것을 보아 全有章은 嫡庶의 序列과 家庭和睦을 重視한 것을 알 수 있다. 嫡庶의 峻別은 이 時代士族의 一般의인 思潮 였으나 全有章家族도 그 例外가 아니었다.

19) 退軒 (全克泰의 號) 從遊錄에 의하면 碩泰의 父 尙祖의 號는 止軒이다. 年長者에 對한 敬稱으로 止翁이라 한 것임.

20) 正峯 (全有章) 의 行狀에 의하면 全克念의 祖父 全時憲이 榮川에서 妻外家가 있는 大邱巴峇里에 移居하였고 또 全時憲의 妻男인 孫起業도 密陽에서 外家곳이기도 하고 妻家곳인 大邱壽城으로 移居하여 살았다. 壽城 (上洞) 과 巴峇은 境界하고 있는 이웃마을이다. 兩家의 關係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以上の考察에 의하여 牒譜 編纂者의 實像이 明確히 浮刻되었을 뿐 아니라, 同時に 英濟(鄒川)의 正統後裔에 關한 虛·實도 밝혀졌다고 하겠다.

4. 壬戌譜 - 虛·實의 再確認

壬戌譜는 壬戌=1802年에 發刊된 密陽孫氏의 大同譜로서 그 存在 自體가 重要한 意義를 지니고 있거니와, 이의 發見은 다음과 같이 이미 論證된 바를 再確認해 주기도 하고 새로운 事實을 알려 준다는 點, 그리고 새로운 疑問을 던져 주기도 한다는 點에서 興味로운 것이라 하겠다.

첫째, 壬戌譜는 校洞派의 最近 族譜인 辛酉譜(辛酉=1981年)가 牒譜라고 主張하는 戊戌譜(戊戌=1838年)보다 36年前에 發刊된 大同譜이므로, 戊戌譜가 牒譜가 아니라는 것은 正峯集에 依해 論證되었지만, 壬戌譜에 의하여 이것이 再確認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壬戌譜에 의하여 密陽孫氏의 牒譜와 그 以後의 大同譜 編纂 事實이 밝혀지게 되었다.

族譜에는 牒譜 以來의 序文이 族譜의 發行順에 따라 모두 收錄된다. 壬戌譜는 自體의 序에 앞서 『密陽孫氏族譜舊序』(…點, 筆者)가 序頭に 收錄되어 있는데 이 『舊序』의 末尾에 『庚戌(庚戌=1670年)閏二月上澣 外孫 進士 全有章』이라 記錄되어 있다. 이 『舊序』의 內容은 正峯集의 『密陽孫氏譜序』와 同一하다. 따라서 正峯集에 의한 考證에 있어서 約 300餘年前에 覽에 의하여 編纂되고 全有章이 序文을 撰한 族譜가 密陽孫氏의 牒譜라는 것을 이미 指摘한 바 있지만 여기에서 그것이 再確認되는 것이다. 이 牒譜는 編纂年度의 干支에 따라 『庚戌譜』(1670年)이라 한다.

여기에 壬戌譜(1802年) 序文의 一部를 轉記하기로 하겠다.

「萬曆庚申, 八代孫覽²¹⁾, 以各家家牒所記, 互相考證, 而合錄焉, 某科某官某娶某葬註錄, 卽正郎公外孫²²⁾, 前進士全有章序文備矣, 又於英廟甲辰, 竹東前進士公慨然乎²³⁾, 尙未鉸梓, 使各家收單增錄, 書已成梓未登者, 初緣各家之喪故, 亦緣旁求漏代逸事矣, ……大丘宗人益曾, 乃覽五代孫也²⁴⁾, 不以今而視昔, 獨也發論詢于各派, 則雖不無貳同之議, 然至於登鑄者, 非自己之志也, 乃遵其五代祖庚申初牒之誠也, 余雖不肖而無文, 未敢辭跋者, 非自己見也, 了述甲辰歲先父兄未果之志也, 庸茲謹書。

歲在壬戌暮春上浣 後孫 性魯」

21) 評理公 8代孫의 뜻.

22) 正郎은 六曹의 正五品의 벼슬, 正郎公外孫은 全有章을 指稱하는 것임.

23) 思翼, 號는 竹圃이다.

24) 五代孫은 四代孫의 誤植임.

[譯]: 『萬曆 庚申해에 評理公 8代孫인 覽이 각 집의 記錄을 相互考證하여, 收錄하고, 科擧와 벼슬에 오른 일·婚姻·墓地 등에 關하여 註釋을 달은 族譜를 만들었다. 正郎公 英濟의 外孫인 全有章이 이 族譜의 序文을 지었다. 또 甲辰(1724年)에 竹東에 사는 前進士公(思翼)이 族譜를 出刊하지 못하였음을 한스럽게 여기어서 각 집들로 하여금 收單을 시켜서 冊이 다 되었는데 出刊하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첫째로 各家의 喪故 때문이고, 둘째로 無後가 되어 代를 잇지 못한 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大邱(壽城)에 살고 있는 宗人 益曾은 覽의 四代孫인데, 그는 지금으로 옛날을 따질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홀로 의논을 일으켜서 各派에 붙으니 비록 의논이 다른 點이 없지 않았으나 出版을 하자는 데는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이리하여 그의 四代祖(覽)가 庚申年(1670年)에 처음으로 大同譜를 起刱한 精神을 따르게 되었으니 내(性魯) 비록 不肖하고 글을 못하나 跋文을 사양할 수 없으니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甲辰年에 先父兄弟들의 못이루신 뜻을 이어 받은 것이다.

壬戌(壬戌=1802年) 저문 북에 後孫 性魯 삼가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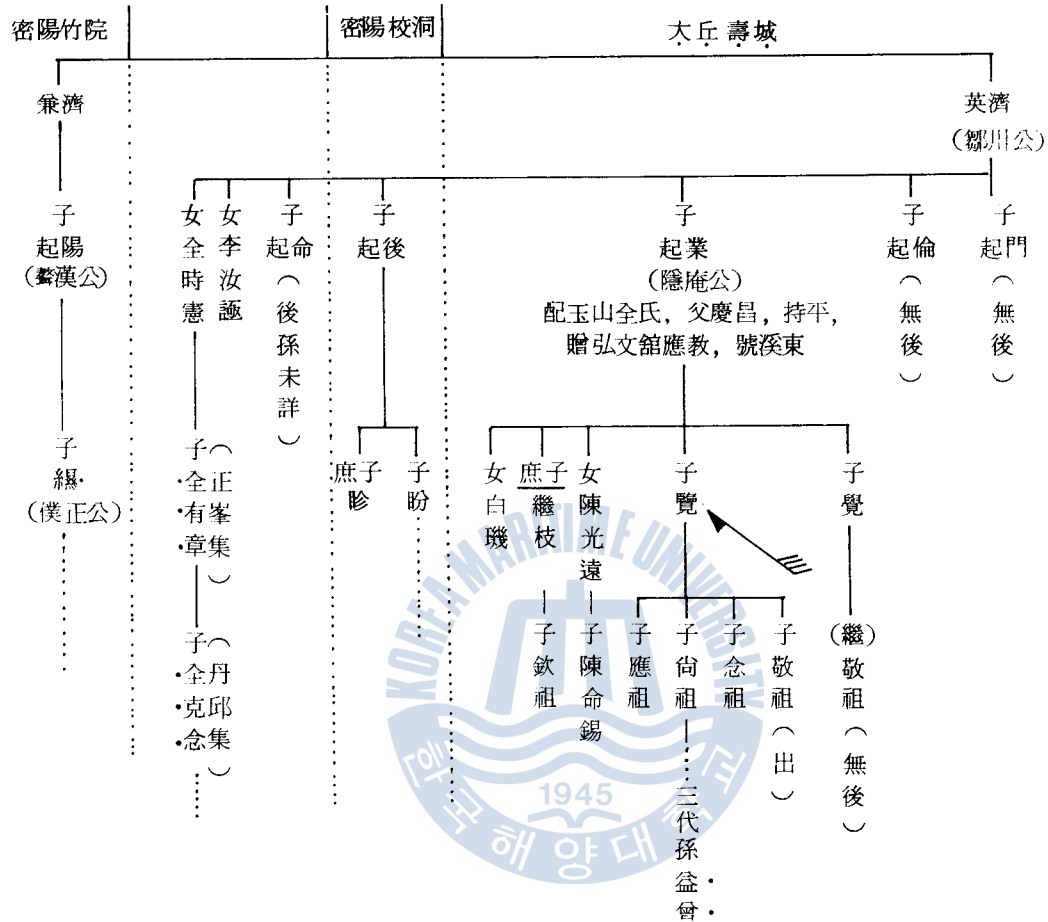
이에 의하여 다음을 알 수 있다.

- ① 壬戌譜(壬戌=1802年)의 刊行者는 刱譜를 編纂한 覽의 四代孫인 大邱(壽城)의 益曾.
- ② 竹院의 思翼에 의한 甲辰草譜(甲辰=1724年)의 存在.
- ③ 壬戌譜의 刊行에는 大谷派의 協力이 있었다.
- ④ 壬戌譜의 『凡例』에 『甲辰草譜爲單卷, 而壬戌印刊時, 分爲上下卷』이라 한 것으로 봐서 甲辰草譜는 單卷이나 壬戌譜는 上·下 二卷으로서 出刊되었다.
- ⑤ 覽이 刱譜의 編纂者이다.(再確認)

둘째, 覽에 關한 丹邱集의 內容과 壬戌譜의 記事가 完全히 一致된다. 이는 壬戌譜에서 轉載한 다음의 <系圖3>으로써 明白하다. 丹邱集에 의한 覽에 關한 考證이 再確認되는 것이다.

셋째, 英濟(鄒川公)의 後孫은 校洞派 뿐이라고 하는 校洞派 最近의 辛酉譜(辛酉=1981年)의 記事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아래의 <系圖3>으로써도 明確하지만, 다음의 系圖와 <表1>의 密陽孫氏大同譜刊行表를 併考하면, 놀랍게도 校洞派의 族譜에 校洞派에 屬하는 庶派이며 『許通』으로 記錄되어 있는 『大邱玉盆』派가 그 實에 있어서 堂堂하게 英濟(鄒川公)의 嫡孫으로 世代가 이어져 있는 『壽城派』라는 것이 判明된다. 놀라운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刱譜 以來 繼續 두번이나 大同譜를 編纂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派가 그 門中의 中心的 位置에 있었다는 것의 示顯이라는 뜻에서 壽城派는 적어도 壬戌譜(1802年) 刊行 當時인 距今 184年前頃까지는 密陽孫氏 門中의 中軸의인 存在있음이 分明하다. 壽城派는 校洞派와 같이 英濟의 後裔이며, 英濟의 長男과 次男이 無後인 가운데 壽城派의 始祖인 起業이 英濟의 三男인데 對해 校洞派의 始祖인 起後는 英濟의 四男이다. 族譜 記事의 誤謬 乃至 虛僞에 驚愕하지 아니할 수 없다.

〈系圖 3〉



〈表 1〉 初期의 密陽孫氏 大同譜 編纂

譜名	編者	年度	備考
庚戌譜	覽 (壽城派)	顯宗 11年 (1670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覽과 內外從關係의 全有章이 序文을 撰했을 뿐 아니라 編纂에 積極協力 竹院派의 縑이 資料蒐集으로 協力 200名 程度의 男女宗員 名單이 收錄된 20張 程度의 小冊子
甲辰草譜	思翼 (竹院派)	英祖 1年 (1724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單卷의 草譜
壬戌譜	益會 (壽城派)	純祖 2年 (1802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大谷派의 性魯가 序文을 撰함.

앞의 <表 1>에 있어서 靑譜 및 大同譜로서 刊行된 壬戌譜의 編纂者는 모두 壽城派에 屬하는 人物이며, 그 壽城派가 <系圖 2>와 같이 記載誤謬 乃至 虛偽記錄되어 있는 點은 우리 注目을 끌기에 充分한 事件이라 하겠다.

네째, 이와 같은 놀라운 論證의 結果로 校洞派 族譜와 校洞派가 靑譜라고 하는 戊戌譜 (戊戌 = 1838年) 및 두번째의 大同譜라고 하는 丙子譜 (丙子 = 1876年) 에 對한 疑感이 더욱 濃厚하게 된다. 그것이 誤謬인가 或은 故意的인 虛偽 (捏造) 인가 하는 疑問이 發生하게 된다. 虛偽 (捏造) 인 경우에는 말할 나위도 없고 萬一 誤謬라 할지라도 評理公 後裔들은 그들의 祖上이 徹底히 正確을 期하고자 한 崇高한 精神을 忘却한 所致라 할 수 있겠고, 나아가서는 祖上의 精神과는 正反對의 마음가짐을 지니게 될 程度로 墮落하게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第 2 節 虛構의 設置와 그 既定事實化企圖

1. 戊戌譜 (1838年?) - 虛構의 設置

叙上의 論證過程에서 發生한 戊戌譜와 丙子譜 (1876年) 에 對한 濃厚한 疑感은 到底히 그냥 넘길 수 없는 性質의 것이라 하겠다.

어떤 文書일지라도 그러하거나와 上揭한 <表 1> 『初期의 密陽孫氏 大同譜 編纂』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族譜의 경우에는 반드시 刊行 乃至 編纂者를 明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戊戌譜에는 奇異하게도 그것이 없다. 그것을 明記하지 못하는 것은 그 自體의 正當性을 스스로 否認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戊戌譜 (1838年?)는 根據없는 正體不明의 文書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近者 (1986年頃) 에는 不隱文書라는 語句가 使用되고 있다. 이 戊戌譜의 最末尾에 다음과 같은 記事가 있다.

『族譜分排秩

淸道大谷 5部, 校洞 12部, 竹院 10部, 昌寧 蓮坪 5部,
達城別派 1部

戊戌 10月 7日 灘亭 新刊』

『灘亭』은 鰲淵亭의 別名으로 使用된 것으로 봐야 하겠다.²⁵⁾

25) 鰲淵亭은 『자라』가 棲息하는 淵에 緣由하는 名稱이며, 洛東江支流인 密陽南川江의 물이 고이는 곳 (淵) 의 江邊에 位置하고 있다. 물가에 있다는 뜻에서 灘亭 또는 江閣이라 別稱될 수 있을 것이다.

鰲淵亭은 壽城派와 校洞派의 祖上인 英濟(鄒川)가 晩年에 亭子를 지어 常在한 곳에 있는 英濟緣故의 齋閣이다. 英濟의 三男 起業이 大丘 壽城으로 移居한 後는 四男 起後의 後孫(校洞派)이 이 鰲淵亭을 管理하고 있다.

『灘亭新刊』이라 하고 있는 것은 戊戌譜(1838年?)의 刊行場所만을 밝히고자 意圖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分析으로 그 刊行主體를 浮刻시킬 수 있다. 戊戌譜는 校洞派의 몇 人士에 의해 몇몇하지 못한 動機와 環境·與件 속에서 刊行된 것이라 解釋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몇몇하지 못한 戊戌譜의 出刊者는 이 戊戌譜를 唯獨 壽城派에게는 配布하지 못하고 있다. 大同譜라 하는 이 戊戌譜는 壽城派 以外的 他派에 關해서는 戊戌年(1838年) 頃에 이르기까지의 內容(評理公 16~17世)을 收錄하면서 壽城派에 對해서는 起業의 3代孫인 『碩』 行列까지만 收錄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關한 說明은 없다. 이것 亦是 戊戌譜의 大同譜로서의 無根據性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壽城派에게는 配布하지 못한 根據없는 이 戊戌譜를 牒譜라 하고 여기에서 壽城派를 庶派『許通』으로 몰고자 한 몇몇 人士가 意圖한 바는 果然 무엇이었으며, 이와 같은 怪奇한 일이 恣行되는 事由와 時代的 背景은 어떠한 것일까.

2. 丙子譜(1876年)－虛構의 既定事實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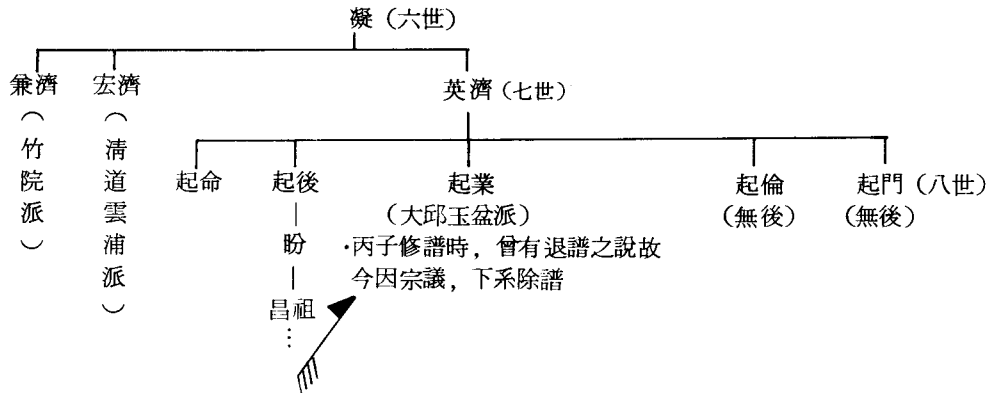
校洞派譜인 辛酉譜(1981年)가 두번째의 大同譜라 主張하는 丙子譜에는 竹院派에 屬하는 鐘夾의 跋文이 있다. 이로서 丙子譜는 戊戌譜(1838年?)와 같이 根據없는 書類는 아니다. 그러나 이 丙子譜도 唯獨 壽城派에게는 配布못하고 있다. 그러나 丙子年에 鰲淵亭에서 刊行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校洞派가 主管한 것이 分明하다. 그런데 이 丙子譜는 戊戌譜의 記事를 全적으로 遵守하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戊戌譜가 根據없는 正體不明의 書類라고 하면 丙子譜도 正體不明의 砂上樓閣의 存在라는 批判을 免치 못할 것이다.

根據없는 虛僞를 내세워 그것을 既定事實化하고자 하는 戊戌譜와 丙子譜와의 關係를 看做할 수 있는 것이다.

3. 辛酉譜(1981年)－故意的 捏造에 의한 血族存在의 抹殺 企圖

앞의 戊戌譜(1838年?)와 丙子譜(1876年)의 考察에 의하여 校洞派譜인 辛酉譜에서 牒譜라고 하는 戊戌譜의 虛構性, 두번째의 大同譜라고 하는 丙子譜의 砂上樓閣의 性格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兩譜는 虛構의 設置와 그것의 既定事實化企圖라는 關係에 있다는 것이 照明되었다. 따라서 戊戌譜의 發刊年度가 果然 1838年인가 하는 點도 疑問視된다.

辛酉譜(1981年, 校洞派譜)의 壽城派에 關한 內容을 보면 다음 <系圖4>와 같이 되어 있다.



〈系圖 4〉

辛酉譜가 壽城派를 大邱玉盆派라 呼稱하여 起業의 下段에 記載한 句節은 다음과 같이 翻譯된다.
 [譯]: 『丙子譜를 編纂할 때 (密陽孫氏族譜에서) 빠지겠다는 說이 있었으므로 이 派譜 (辛酉譜)의 發刊에 즈음하여 宗議에 의하여 起業의 子孫을 除譜한다』

校洞派가 主管한 大同譜라고 하는 戊戌譜 (1838年?), 丙子譜 (1876年), 乙亥譜 (1935年)에 서 庶派로 물고 『許通』으로 記載한 場所에 그 記事에 가름하여 『丙子修譜時云云』하는 위 句節이 校洞派譜인 辛酉年 (1981年)에 記載되어 있다. 여기에서 下系라 함은 起業의 子孫, 卽 英濟의 孫子 以下의 壽城派를 뜻한다.

丙子修譜時에 壽城派가 密陽孫氏 族譜에서 빠지겠다는 說에 關한 證據는 없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上記 文章을 分析해 보면 그것은 矛盾과 自家撞着을 露呈시켜 語不成說이 된다.

(1) 『丙子譜를 編纂할 때 密陽孫氏 族譜에서 빠지겠다는 說이 있었으므로...』

① 辛酉譜 (1981年)가 丙子修譜時에 退譜說이 있었으므로 壽城派를 除譜한다고 하면, 그 處事와 除譜라는 語彙의 妥當性 與否를 姑捨하더라도, 丙子以前 卽 退譜之說이 없었던 때에 出刊되었다고 하는 戊戌譜에는 그 때 (戊戌 = 1838年)까지의 壽城派 (起業의 子孫)는 收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戊戌譜는 壽城派보다 먼 血緣 (寸數)인 蓮坪派, 大谷派, 竹院派에 關해서는 戊戌年頃에 이르기까지의 內容을 收錄하면서 唯獨 壽城派의 下系는 除外하고 있다.

이는 『有退譜之說』의 虛僞性 및 戊戌譜의 虛構, 그리고 辛酉譜의 故意的 捏造를 自白하고 있는 것이 된다.

② 辛酉譜가 『丙子修譜時, 曾有退譜之說, 云云』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라면, 族譜의 性格上에 關한 事由가 반드시 序 또는 後跋에 記錄되는 법인데 丙子譜에는 그와 같은 記事는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說이 있었다는 根據는 없는 것이고 辛酉譜의 虛僞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宗議에 의하여 下系(起業의 子孫, 卽 壽城派)를 除譜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疑問이 發生된다.

① 自派(이 경우는 校洞派)의 會議로서 他派의 下系를 除譜할 수 있는가?

② 上揭의 <系圖4>에 있어서 英濟의 季弟인 兼濟의 경우, 竹院派라 記錄하고 그 以下는 餘白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他派에 對한 派譜의 記載方式이라 하겠다. 왜 壽城派(校洞派는 大邱玉盆派라 稱하고 있다)에 對해서는 『除譜云云』하는가, 그 까닭은 무엇이며, 그리 할 수 있는 것인가?

③ 除譜(除籍·除名)란 主體로서의 組織體 또는 集團이 그 構成員의 資格喪失을 規定하고 逐出하는 경우에 使用되는 말로서, 그것이 處罰的 手段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校洞派가 壽城派를 除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解釋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 할 수 있는 것인가?

위의 물음에 對한 答은 勿論 全部 『否』라는 것은 自明之事라 하겠으며, 이것은 辛酉譜의 故意的 捏造性을 明白히 立證하는 것이 된다.

叙上으로 校洞派의 最近(1981年)의 族譜인 辛酉譜에 있어서의 戊戌譜(1838年?)의 朔譜說과 英濟(鄒川)의 後裔는 校洞派라고 하는 主張은 故意的인 虛偽捏造라는 것이 論證되었다고 하겠다.

가장 가까운 血族(英濟의 嫡孫)인 壽城派에 對한 校洞派의 이와 같은 處事는 實로 怪奇하고 常識 밖의 일이라 하겠는데, 于先 생각할 수 있는 動機는 다음과 같다.

英濟의 五男中 長·次男은 無後이고 三男인 起業의 後孫인 壽城派는 離貫鄉하여 멀리 大邱地方에 僑居하고 있으므로, 이 壽城派를 첫 段階로서 密陽地方에서 存在없는 것으로 하고, 機의 成熟을 기다려 抹殺하면 四男 起後의 子孫인 校洞派가 英濟의 唯一한 嫡孫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校洞派에서 英濟의 宗孫을 自稱할 수 있는 榮譽을 누릴 수 있다는 封建的 價値觀의 所致라 하겠다.

近代化에 拍車를 加해야 할 1981년에 이르러서도 前近代的 價値觀에 사로잡힌 族譜의 故意的 虛偽捏造가 恣行된 事實에 注目해야 하며, 이는 우리에게 不少한 衝擊을 주는 바이다. 이와 같은 怪奇하고 常識 밖의 일을 恣行하게 된 事由와 經緯에 關한 考察이 있어야 하겠다.

第3節 虛偽捏造 誘發事由

1. 分派間의 力學關係

같은 祖上의 後孫일지라도 時間의 흐름에 따라 分派를 形成하게 되고, 世數의 下降과 더불어 主導的 分派의 擡頭와 그 交替가 있게 되는 것이며, 이에 수반하여 相互間의 親疎, 協調 또는 對立 葛藤關係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密陽孫氏의 主導的 分派를 大同譜 編纂에서 볼 때 初期에는

壽城派이고 後期는 校洞派이다. 그 交替期는 壬戌譜 (1802年) 刊行後인 19世紀 初葉이다.

(1) 壽城派 主導時期

① 壽城·竹院 兩派 祖上의 親睦과 協力

(가) 起業 (壽城派祖上) 과 起陽 (竹院派祖上) 의 親交

密陽孫氏 評理公 下系의 世數와 行列은 다음 <表2>와 같다.

<表2>

世 數	7 世	8 世	9 世	10 世	11 世	12 世	13 世	以 下 略
行 列	濟	起	目	祖	碩	胤·萬	曾	

『濟』行列에서 (文) 登科한 것은 壽城·校洞派의 祖上인 英濟 (鄒川) 뿐이고, 『起』行列에서 (文) 登科한 것은 竹院派의 祖上인 起陽 (贅漢) 뿐이다 (系圖3 參照). 『起』行列에서 登科하지는 아니하였으나 門下生이고, 號를 가진 것은 起業 (隱庵, 1565~1626年) 뿐이다. 그리고 起業은 (文) 登科한 英濟의 嫡子이며, 贈弘文館應教이고 先生으로 尊稱된 全慶昌의 女婿이었다는 點 등을 勘案할 때, 當時의 評理公 後孫 중에 있어서의 그의 位置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文) 登科한 6歲 年上인 從兄 起陽 (1559~1617年) 과는 親密한 關係에 있었고 大小事에 關하여 의논할 수 있었던 사이였다고 하겠다. 이는 丹邱集의 다음 句節로서 알 수 있다.

『當龍蛇板蕩之勢, ……, 與其從兄贅漢公起陽, 赴鄉儒倡義所, 其指論方略, 略具本郡邑誌』

[譯]: 『壬辰倭亂을 당하여 起業은 從兄인 贅漢公 起陽과 더불어 선비들의 義兵所에 갔는데, 起業이 提議한 策略이 卓越하여 本郡邑誌에 그 概略이 記載되고 있다』

(나) 覽 (壽城派) 과 縑 (竹院派) 의 牒譜 編纂에 있어서의 協力

本稿의 序頭 (問題의 提起) 部分에 轉載한 『……僕正公縑, 得來於典籍孫海英家, ……』의 文章은 牒譜 編纂에 있어서 再從兄인 覽 (1592~1676年) 에 縑 (1616~1650年, 竹院派始祖 兼濟의 嫡孫) 이 積極 協力하여 平海의 孫海英家까지 가서 資料蒐集한 것을 記述한 內容이다.

覽과 그의 再從弟인 縑과 全有章 (覽의 姑從) 과의 協力으로 編纂된 牒譜인 庚戌譜 (1670年) 는 覽의 孫子行列인 『碩』字名의 宗族에 이르기까지 收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收錄人員數는 男女 計 208名, 6段으로 記載하는 族譜方式에 따르면 序, 凡列, 其他를 合하여도 約 20枚 程度의 小冊子라 하겠다.

이와 같이 하여 牒譜인 庚戌譜 (1670年) 編纂때까지 壽城派의 祖上和 竹院派의 祖上은 寸數로는 再從 (6寸) 間이라는 가까운 사이였을 뿐 아니라 相互親密한 關係에 있었다.

② 壽城派와 大谷派의 協調

評理公 後裔의 두번째의 大同譜인 壬戌譜 (1802年)는 壽城派의 益曾 (評理公 13世)에 의해 編纂되었고 大谷派의 性魯가 序文을 撰하였다. 이것으로 이 때에는 壽城派와 大谷派의 提携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壽城派의 衰退

『夫孝德之本也, 教之所由也』, 『甚哉孝之大也, ……』, 『夫孝者天之經, 地之義』라 하고 있는 바와 같이 儒教 (封建) 社會에 있어서 孝는 絶對的인 存在이었다. 『密陽孫氏六世九孝錄』에 의하면 壽城派는 孝道에 一貫하였다. 代表的인 人物은 靑譜의 編纂者인 覽의 孫子인 碩泰로 그의 父인 尙祖가 歿하자 27年間이나 草廬守墓生活을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過程에서 必然的으로 家産의 消盡과 家勢의 衰退라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었다.

(3) 校洞派의 擡頭와 그 主管下의 大同譜 刊行

壽城派의 衰退와는 對照的으로 19世紀中葉以降 校洞派의 興隆을 볼 수 있다. 舊韓末에 이르러 異例的인 巨大 致富를 이룩한 校洞派는 이를 바탕으로 官界에 進出하는 人士를 輩出하였다. 評理公 後裔 各派間의 在來의 힘의 均衡은 무너지고, 校洞派가 中軸的 立場을 確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舊韓末以降 校洞派 主管下에 族譜가 刊行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음 <表3>과 같다.

<表3>

譜名	編者	年度	備考
戊戌譜	?	1838年?	· 編者가 없으므로 無根據書類임. 刊行年度도 疑問이라 하겠다. · 末尾에 『戊戌 10月 7日 灘亭新刊』에 의해 校洞派의 몇 人士에 의한 것이 確實하다.
丙子譜	鐘夾	1876年	· 竹院派의 鐘夾에 의한 後跋이 있음. · 末尾에 『鰲淵亭刊』이라 하고 있으므로 校洞派에 의한 刊行이라는 것이 確實하다.
乙亥譜	之鉉	1935年	· 校洞派의 代表的인 人物의 이름이 明記되어 있다. 正三品通政大夫前郡守

위의 <表3>을 注意깊게 보면 다음 圖式이 成立된다.

[虛構의 設置 (戊戌譜) → 既定事實化 (丙子譜) → 確固化 (乙亥譜)]

이를 校洞派의 壽城派 對策이라는 觀點에서 보면 다음 圖式이 成立된다.

[庶派 『許通』으로 몰고 → 이의 既定事實化 → 壽城派 抹殺]

上掲〈表3〉과 前掲〈表1〉의 對照로써 密陽孫氏門中에 있어서의 分派間의 勢力의 消長과 族譜刊行과의 關係를 알 수 있다. 19世紀初까지는 壽城派가 中軸의 位置에 있었으나 그 後부터는 校洞派가 이에 代替하게 된 것이다. 家勢의 盛衰·中軸의 位置의 移行過程에서 위와 같은 圖式이 形成된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興味로운 것은 評理公 後裔의 分派 중에 있어서 主導權의 爭奪戰은 英濟(鄒川)의 後裔인 壽城派와 校洞派에 의해 展開되었으며, 他派는 助演의 位置에 있었다는 點, 그리고 校洞派의 抹殺對象은 오로지 壽城派 뿐이었으므로, 校洞派의 巨大한 富의 힘과 勢道를 論外로 하더라도, 他分派는 無關心 乃至 不關與의 態度를 取할 수 있었다는 點이라 하겠다.

2. 貫鄉外移居

上述한 바와 같은 族譜의 虛僞捏造를 校洞派가 恣行하게 된 事由의 하나로 壽城派의 始祖가 되는 起業이 密陽本第에서 大邱壽城(上洞)으로 移居하였고, 그 後孫이 그곳에 定住하여 貫鄉인 密陽에서 살지 아니하였다는 點을 들 수 있다.

起業은 왜 貫鄉外인 大邱壽城으로 移居하게 되었는가 이에 關해 考察하기로 하겠다.

丹邱集의 『通德郎 孫公起業 行狀』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嘉請 44年乙丑 2月 11日 生公于密州校評里第, 公生而穎悟, 甫學語能辨字書, 七歲始就學, 不煩教督, 而見解日就, 早識義理之分, 庭重甚重, 十五歲館甥于溪東全先生門, 是年冬即就講執大學一帙, 音響清越, 文義昭釋, 一座稱歎, 溪翁性素簡默, 小許於人, 而獨於公每加推賞』

[譯]: 『孫起業은 西紀 1565年 2月 11日 密陽校評里의 本第에서 誕生하였다. 幼時부터 穎悟하여 말 배울 때 벌써 글자를 알았다. 7歲 때 배움에 들어 있는데 번거로이 促勵하지 않아도 날로 나아가 일적부터 義와 利의 分을 알고 行身이 甚히 正중하였다. 15歲 때 溪東先生 全慶昌의 宅으로 장가를 갔고 그해 겨울에 바로 講會에 나가서 大學을 講받는데 그의 글읽는 소리가 淸朗하고 文義도 明釋하니 一座가 모두 칭찬하였다. 溪東先生은 天性이 簡默해서 남을 칭찬함이 적었으나 唯獨 起業에게만은 每事에 칭찬을 하였다』

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戊子丁外艱, 拚號幾絕, 日守亞廬不脫經帶, ……, 繼而遭淑夫人憂, 居喪盡禮如前, 喪後卜仁于大邱壽昌, 蓋公之娶鄉也』

[譯]: 『1588年에 父親인 英濟가 死亡하자, 號哭하다가 몇 번이나 氣絶하였다. 每日廬를 지키고 喪服을 벗지 않으며, ……, 이어 어머니인 淑夫人 達城徐氏의 喪을 當하였는데, 父親喪과 같이 禮를 다 하였다. 그 後에 妻家곳인 大邱壽城으로 移居하였다』

이와 같은 記事를 볼 때 起業이 貫鄉을 떠나게 된 事由는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첫째, 溪東先生의 四女(막내딸)와 結婚하여 丈人の 格別한 寵愛를 받았다는 것.
 둘째, 溪東 全慶昌은 贈弘文館應教의 벼슬에다 巨富이었으나 後嗣가 없었다는 것.
 셋째, 大邱地方이 密陽보다 學問이나 交友에 있어서 條件이 좋았다는 것.
 넷째, 父母가 다 別世하였다는 것.

다섯째, 移居한 大邱壽城은 妻家곳이기도 하거니와 어머니인 英濟夫人(達城徐氏)의 親庭곳, 卽 外家곳이라는 것. 이에 關해서는 全有章(正峯)文集의 몇 句節이 參考가 된다.

正峯年譜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先孝宣教公, 因婦翁鄒川孫先生, 始來壽城縣』, [譯]: 『全有章의 父親인 全時憲은 丈人인 孫英濟로 因하여 壽城(巴岑)에 移居하였다』

그런데 正峯行狀에 의하면, 全時憲은 丈母인 英濟夫人(達城徐氏)을 禮訪하고 歸家途中 丈母의 親庭곳인 壽城(巴岑)을 지나갈 때 그곳으로 移居하기로 決定하였다고 한다. 全時憲의 壽城 移居는 英濟夫人의 意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英濟夫人(達城徐氏)은 그의 아들 起業과 딸(孀 全時憲)을 親庭곳으로 移居하게 한 것이 된다.

3. 儒教(封建)社會의 價値觀

(1) 儒教(封建)社會의 家格

儒教(封建)社會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讀書人階級(不勞所得階級)인 兩班이 되어야 하고, 兩班家門의 格은 다음에 의해 評價된다.

첫째, 文廟配享 祖上의 有無, 둘째, 文諡號(例 文純公)을 받은 祖上의 有無, 셋째, 家系에 名儒, 賢臣 또는 孝子·烈女의 數의 多寡. 넷째, 居住하는 고을의 大姓으로 認識되는가의 與否.

그런데 舊韓末에 이르러 密陽孫氏의 中軸的 位置에 있게 된 校洞派는 不幸하게도 그 어느 하나도 充分히 滿足시키지 못하는 狀態에 있었다.

(2) 富와 家格의 乖離

四色黨派로서는 南人에 屬하는 密陽孫氏는 大院君 執權 以後 겨우 몇 人士가 官職을 얻게 되었을 뿐이었다. 朝鮮朝에 이르러 文廟配享, 文諡號는 勿論 貫鄉인 密陽에서 四大姓에도 들지 못한 狀態였다.

校洞마을의 秋收高가 約 3萬5千石이었다고 하니 韓國의 單位村落으로서는 보기 드문 巨大한 富였다고 하겠다.

이 巨大한 富와 舊韓末의 密陽孫氏(校洞派)家門의 格과는 懸隔한 乖離를 發生하게 하였다. 巨大한 富와 自派 家門의 格과의 乖離의 克服 乃至 縮小에 의한 均衡의 成立은 校洞派가 直面한 當

時로서는 重大한 問題였다.

그런데 朝鮮朝時代의 雄府였던 密陽일지라도, 退溪의 門人은 單 2名 뿐이었는데 壽城派와 校洞派의 祖上인 英濟는 그 한 사람이었다. 여기에 校洞派는 退溪門人인 英濟의 唯一한 嫡孫이 되어야 하고, 宗孫의 榮譽를 獲得해야 할 必要가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上述한 바와 같이 같은 英濟의 嫡孫인 壽城派를 庶派로 몰고 及其也는 그 抹殺을 企圖하게 된 것이다.

結 言

叙上の 考察에서 볼 때, 族譜는 過去의 遺物이 아니고, 20世紀末葉의 韓國人의 마음에 그 生命을 脈動시키고 있음이 밝혀졌다. 最近(1981年)에 發刊된 密陽孫氏의 한 族譜(派譜)에서 前近代의 價直觀에 사로잡힌 故意的인 虛僞와 捏造를 볼 수 있었음은 우리에게 적지 아니한 衝擊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의 孝重視의 儒敎는 血緣重視의 意識構造를 形成하게 되고, 이에 의해 좁은 血緣範圍內 血族의 結合·團結을 強化하게 된다. 그리하여 道德·倫理의 二重構造를 가져오게 된다. 卽 禮儀나 秩序 따위의 良風美俗이나 道德은 오로지 家族內, 近親血緣範圍內에서만 存在하는 것이고, 외간사람(外間者)에게 通用시킬 必要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些少한 前近代의 價値의 獲得乃至 維持를 爲해서는 現代人의 一般常識으로는 想像치도 못할 일을 거리낌 없이 恣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前近代의 價値觀이 尙今 韓國人의 마음 속에 生生鼓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近代化와 經濟發展에 큰 沮害要素가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云云할 必要가 없다고 하겠다.

近者에 Weber의 所論을 白人優越感에 의한 偏見이라 批判하고, 所謂 우리 固有의 것(?)의 優秀性を 讚美하고자 하는 論旨을 散見할 수 있다. 그와 같은 論者가 어느 깊이까지 Weber의 研究를 理解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早急한 結論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이다.

發展途上에 있는 우리에게 Weber가 示唆하는 바, 實로 多大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謙虛한 마음으로 Weber의 所論을 吟味하고, 그의 視角에서 우리의 近代化沮害要素를 檢討·是正하는데 注力해야 할 段階에 있다는 것을 認識해야 한다고 하겠다. Weber는 다음과 같은 點에서도 우리에게는 興味로운 研究對象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German族(獨)과 Anglo-Saxon族(英)은 民族的으로 가장 가까운 血緣關係에 있다. 그러나 獨逸이 大陸國家인데 對해 英國은 島嶼國家이고, Weber의 祖國 獨逸은 哲學에 있어서 Kant, Hegel文學에 Goethe, Schiller音樂에 Bach, Bee thoven 등을 輩出한 歐州에 있어서 高水準의 文化를 자랑하는 代表的인 나라의 하나인데 對해 英國은 近代化와 經濟發展에 있어서 20世紀中葉에

이르기까지 獨逸의 追從을 不許하였다.

Weber에 의한 文化와 經濟發展과의 關聯의 研究는 祖國獨逸의 後進性을 克服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의 愛國心の 發露인 것이다. 그리하여 Weber는 같은 基督教文化圈에 屬하지만 Protestantism教圈에 있는 英國民의 近代化된 意識에 對해 Luther派의 影響으로 獨逸國民이 前近代的 思考에 사로잡혀 있는 點이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었다.

韓國이 近隣島嶼國家인 日本을 바라보는 狀況과 類似한 點이 있다고 할 수 없을까…….

參 考 文 獻

一. 文集類

正峯集, 丹邱集, 溪東集, 東國氏族攷, 一直孫氏壽城閱歷

二. 關聯氏族 世譜

達城徐氏族譜, 沃川全氏族譜, 玉山全氏族譜

三. 密陽孫氏 族譜

壬戌譜 (1802年), 戊戌譜 (1838年?), 丙子譜 (1876年), 乙亥譜 (1935年)

蓮坪派譜, 大谷派譜, 校洞派譜 (辛酉譜, 1981年), 壽城派譜 (壬戌譜, 1982年)

四. 其 他

密陽孫氏六世九孝錄, 大邱邑誌, 儒學淵源, 國史事典

後 記

大邱壽城과 密陽校洞간의 地理的 隔離性으로 인한 真相認識의 遲延, 文獻 涉獵能力的 缺乏, 相互 疎遠 및 力學關係 등으로 思料되지만, 尙今 兩分派間에 紛爭의 發生은 없다.

萬一 族譜問題로서 密陽孫氏門中에서 가장 가까운 血緣關係에 있는 兩分派가 鬭爭을 하게 되면 그 心的·物的 被害의 莫甚함은 勿論이거니와 近代化 時代에 이와 같은 問題로서 相互 反目하여 怨讐之間이 되는 損失은 무엇으로 補償될 수 있겠는가.

銘心해야 할 것은 첫째, 問題의 解決에는 眞實의 認識이 무엇보다 優先되어야 하고, 또 眞實을 直視할 수 있는 勇氣가 있어야 한다는 點이며, 둘째, 虛偽捏造는 一部人士에 의해 恣行된 것이지만 드시 全體의 責任도 아니고 全員の 意志도 아니라는 點이다.

이 研究가 眞實의 把握과, 이를 바탕으로 한 問題의 解決, 나아가서는 兩派間의 和合에 조금이라도 貢獻되는 바가 있으면 이는 筆者의 無上의 기쁨이라 하겠다.



附錄

注意

自 29 페이지 1 至 40 페이지 45 順序가 逆으로 되어있음

(29 페이지 부터 右에서 左로 읽을것)



有所受也昔吾先府君每莊誦內舅公嘉言善行曰
行年六十未嘗一言人之過失隨遇應接各盡其道
處家而和兄弟而友族黨而睦是不但天受自然果
學問之難誣後之學公萬一者蓋於是求之乎余嘗
耳承而欽艷者久矣日其曾孫碩泰以其大人止翁
命奉遺事一通屬克念以狀行文克念何敢焉哉第
以宅相之地自有平生所素熟聞則不敢以不文辭
謹就遺事櫟括而間附庭命所受以備立言君子攷
捃而財擇焉

而終距其生六十二是年某月日葬于守南玉盆西
坐之原配玉山全氏弘文館應教號溪東慶昌之女
婦道甚備有女士風先公六年卒墓巴岑茂陵洞溪
東先生墓下西向以遺命也有二男一女男長覺次
覽女適陳光遠餘男繼枝覺嗣男敬祖覽四男敬祖
入承宗念祖尚祖應祖陳男命錫繼枝男欽祖武宣
傳餘不錄嗚乎天姿絕特躬務實學孝悌其本質
也謹嚴其節度也執縉講義五鹿折角秉管論著萬
牛汗背若其遇善同志則媿媿賜顏撤去藩籬說到
天人性命之原辨內外輕重之分是皆公篤行務實

來淳經亂如今鮮矣仁相對莫言時世態此心要在
 養天眞 神宗皇帝二十七年己亥春樂齋徐公摹
 奉宋朝六君子畫像朝望必瞻拜開學時有往復書
 壬寅四月講于鄭先生寒岡精舍乙巳三月講學于
 仙查鄭先生因船遊洛江會負七十餘人可未七月
 講于地主鄭愚伏先生既望因船遊洛江十月講于
 愚伏先生陪從寒旅愚三先生時俱有上書質疑之
 事其見重於世如此遜無自憫安素分於布暖藜飽
 心存戒懼寄一生於淵澗冰薄沉靜默雅自不妄語
 望儼卽溫真間世天挺也丙寅五月二十六日奄然

公起陽赴鄉儒倡義所其指論方略略具本郡邑誌
戡亂後返于舊居墟落蕭然青箱舊業其他詞藻往
復殆盡兵燹散秩無毫忒因抱貞崇積年閉戶自號
隱菴以寓警省之旨日以緝閱經訓子集爲遣愁之
資慕軒朴公陽春以詩贈曰韜晦林泉老高明板蕩
時守分窮何憫須從道義知慕堂孫公過新居有感
詩曰墻頽柏老只餘基舉酒推忠挾冊時山雨溪風
依舊態忘歸三歎強題詩繼又諸賢之次韻聿多而
載新居集東溪趙公享道徐公忠建遊鄉射堂時有
共話四律雙碧堂李公元生以詩次日達城風俗古

卯八月先生會諸生撰講公亦執經問難已巳十月
 謁先生于不知巖精舍講無極太極之理而同門諸
 公皆服其間奧先生曰程夫子所謂只怕後生尋息
 推究者此也勝輔諸賢有徐樂齋孫慕堂暨通講錄
 中名賢輩蓋并世道義相許戊子丁外艱拚號幾絕
 日守聖廬不脫經帶讀禮之暇仿治諸經格語滋益
 其所不能是亦孝中一事古人所云喪中最宜看讀
 者也繼而遭淑夫人憂居喪盡禮如前喪後及卜仁
 于大邱壽昌蓋公之娶鄉也未幾當龍蛇板蕩之勢
 避賊鋒而置家率于高常谷巖幕中與其從兄聲漢

十一日生公于密州校評里第公生而穎悟甫學語
能辨字書七歲始就學不煩教督而見解日就早識
義理之分庭重甚重十五歲館甥于溪東全先庄門
是年冬卽就講執大學一帙音響清越文義昭釋一
座稱歎溪翁性素簡默小許於人而獨於公每加推
賞揭來有年獎翊益深遂使趨倚於旅軒張先生門
而拜輒承誨誨必以義其誘掖獎勸之道淘汰薰沐
之悅不翅秉拂下束脞爲諭先生嘗以書答曰際此
波蕩之地幸得與賢執史翊心相叩又曰學無間斷
研篤終要不在鄙勉卽此數轉批語可見公實地發

公諱起業字興彥姓孫氏貫密陽上祖諱順新羅
興德王時以孝聞諡贈文孝埋子得鍾著麗史屢
傳至諱兢訓麗朝封廣理君又十一世至諱贊密
城君諡文貞逮本朝有諱李卿匡靖大夫門下評
理是生諱承吉文科承旨是生諱以恂通政大夫
兵馬節度使是生諱信復進勇校尉於公為高祖
曾祖諱世蕃忠順衛祖諱凝奉政大夫軍資監正
考諱英濟文持平通訓大夫兵曹正郎號鄒川卽
陶山高足也妣淑人達城徐氏縣監徐時重之女達
城府院君均衡之後以嘉靖四十四年乙丑二月

之源流雖孫氏再三從諸房覽之亦无嫌於詳於已
而略於它也

聯芳集卷之四

丹邱遺稿上

通德郎孫公 起業 行狀



之无致於忽忘焉蓋覽之修此譜非庸衆人所可企及非覽曷能致誠如是其勤也猶且不以是爲足又屬余侷序覽不解文者庸詎知余之文不足以賁盛事耶余无德矣且遲暮矣固不敢操紙筆自抵僭越之罪而第此譜吾侷也只可纂次世系記其修正日月而已文不文有何關焉且夫外王父娶縣監諱徐時中女徐卽左議政達城府院君諱均衡之後也縣監娶大提學山花李先生七世孫上護軍諱九經孫女護軍娶右議政南原府院君胡安公諱黃致身女三姓亦皆顯閥略書其直派于下使子孫互覓外氏

天折嗚呼痛哉天若不遺我先祖積累之勤使後世
食其報焉則卽今諸子孫之業文業武者抑將有待
也耶噫久此譜者其祖一體也始於斬至于總又至
于無服無服則視之若路人然夫以一人之身分而
至於路人喜不慶憂不弔豈人子人孫之所忍爲乎
余以是常慨然外從覽聽余言瞿然動心卽就議於
本貫所在諸秀士各以父兄所傳互相考訂首書八
代祖爲中興之始而至於父兄以下則備述其娶某
氏葬某山又書外王父五昆季內外支派以示余余
亦搜輯小牒中所記而增錄之依橫圖以序其次使

肇慶之祖評理卽余外八代祖也八代以來隆顯無比聯姻巨室若凝川朴氏夏山曹氏巴陵趙氏皆以三韓著族內外宗支散處四方登崇品名當世者不可以一二數則古人所謂根深而末茂源遠而流長者非是之謂歟惟我外王父兄弟五人王父居第三早擢文科聲望藹蔚兩弟一姪俱中司馬從舅氏聲漢公又從而趾美焉方是時夫孰不蟻慕而山仰哉不幸門運中衰死亾相繼且緣僻處窮鄉有才無命內外孫之題名鴈塔榮拜墓道者在內惟碩佐在外惟吾兄弟若李弼臣如干而已而伯兄早沒弼臣又

附錄

正峯先生文集卷之一

密陽孫氏譜序

謹按密州孫氏譜實吾東望族其先蓋出於新羅孝子孫順石鍾事蹟載在東史而歿后國亂相仍州郡焚燹世系譜牒逸而不傳自孝子至評理其間代數不知其久近又未詳某祖在某朝以某官分封於密烏可的然以順爲鼻祖而自冒爲來雲邪是以外王父正郎府君墓誌以匡政大夫門下評理諱季卿爲